



하루에 하나



2026.6.19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27.10원 (+13.70원)

KOSPI

9,063.84 (+199.60, +2.25%)

KOSDAQ

1,000.93 (-31.03, -3.01%)

국고채 10년 금리

4.118 (+0.04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우리가 잘못 읽고 있던 K자형 경제 [이영주]
Global Macro Alert	6월 FOMC: 케빈 워시보다 다수의 목소리에 집중 [전규연]
하나채권	[6월 FOMC] 물가안정, 12월 인상, 금리 상승 [박준우]

기업분석

BNK금융	이번 분기는 다를 것 [최정욱]
BGF리테일	점포 영업레버리지 효과 본격화 [박중대]
레이저옵텍	IPO 주관사 업데이트: 올해는 회복 구간, 내년부터 성장 기대 [김다혜]

산업분석

방위산업	국방생산법 제708조 발동: 미 방산 실적의 중장기 모멘텀 [채운샘]
------	--

Weekly

통신서비스/장비	지금이 통신 장비주 매수 기회입니다 [김홍식]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SDI, 대한항공, 대덕전자, HD건설기계, 오리온, 한국콜마, 테스, 에치에프알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9일 | Global Asset Research

자산배분의 창(窓)

우리가 잘못 읽고 있던 K자형 경제 (소득은 중산층인데, 왜 삶은 더 팍팍할까)

중산층은 무너지지 않고 이동했다..

K자형 경제는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K자형 경제는 가계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계층을 구분한다. 미국 Census Bureau 역시 가구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분류하고 있으며, 중산층 축소 여부 역시 이러한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2022년 실질 달러 기준 저소득층 3만5천 달러 미만, 중산층 3만5천~10만 달러, 고소득층 10만 달러 이상)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위 계층은 소득과 자산 증가의 수혜를 동시에 누린 반면, 중하위 계층은 실질 구매력 약화와 고용 불안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K자형 경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K자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미국 Census Bureau 자료에 따르면 1967년 전체 가구의 54.6%를 차지했던 중산층 비중은 2022년 39.1%까지 감소했다. 표면적으로는 중산층 붕괴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 저소득층 비중 역시 32.3%에서 23.3%로 줄어들었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 비중은 13.1%에서 37.5%로 크게 증가했다. 해석해보면 중산층 비중 감소는 중산층 붕괴보다 상위 소득 계층으로의 이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진 것은 중산층이 아니라 중간소득 구간이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또한 미국의 상위 중산층 (Upper Middle Class) 규모가 1979년 대비 약 세 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소득 구조 변화의 배경으로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교육 수준 향상을 꼽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은 개인의 임금뿐 아니라 가구 내 소득 창출 인원 수에 의해 결정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가구 증가는 가구 소득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확대가 두드러진 가운데 1970년 약 13% 수준이었던 여성의 대학 학위 보유 비율은 최근 4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고학력 인력 증가와 전문직 확대는 중산층의 상향 이동을 이끌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물가 상승의 착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통계는 모두 2022년 기준 실질 달러로 환산된 수치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거한 이후에도 상위 소득 계층 비중은 뚜렷하게 증가해왔다.

소득은 늘었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할까

소득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은 가구가 K자의 상단으로 이동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것일까.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가계 자산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상위 10% 가구는 미국 전체 가계 순자산의 약 67%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지난 15년간 초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반복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자산을 보유한 가계는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렸지만, 자산이 없는 가계는 인플레이션 부담만 떠안았다. 결국 오늘날 K자형 경제의 하위층은 단순히 저소득층이 아니라 자산 축적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타인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경제적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른바 '포모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소비와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확산은 비교 대상을 주변 이웃에서 상위 1% 자산가로 확대시키며 체감 불평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결국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진입했더라도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가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안과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AI 시대, K자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까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K자형 경제를 더욱 가속화할 핵심 변수는 인공지능(AI)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수혜가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행정지원, 회계, 사무직 등 반복 업무 중심의 직군은 자동화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중간 숙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새로운 투자와 고용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의 AI 투자 구조를 고려하면 초기 수혜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개인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소득 기준으로는 K자의 상단으로 이동했더라도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가계는 상대적 박탈감과 포모를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동시에 누리는 계층은 자산 증식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K자형 경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를 구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되더라도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K자의 상단과 하단 내부에서조차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AI가 생산성과 자본의 결합을 강화할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같은 중산층에 속하더라도 자산 축적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경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경제 구조는 지금의 K자형 경제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생산성과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중간 지대는 점차 좁아지고, 경제 구조는 K자를 넘어 'I자형 경제'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K자형 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산 가격 상승과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가져가고 있는가에 있다.

2026년 6월 18일 | Global Asset Research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Macro Alert

6월 FOMC: 케빈 워시보다 다수의 목소리에 집중

기준금리는 3.50-3.75%로 동결, 커뮤니케이션은 축소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회의였는데, 성명서가 간결해지고 기자회견 시간도 짧아지며 포워드 가이드선 제시를 지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명서에서는 완화 편향 문구가 삭제되었고, 물가 안정 달성을 강조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생산성 증가와 자본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은 “노동력 증가 속도에 맞춰 유지되었고,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고 평가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특정 부문의 가격 상승이 초래한 공급 충격을 반영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케빈 워시는 빠진 점도표, 나머지 위원들은 SEP 통해 매파적 통화정책 강화

6월 경제전망은 매파적이었다. 물가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헤드라인 물가는 26년 2.7%→3.6%, 27년 2.2%→2.3%로, 근원 물가는 26년 2.7%→3.3%, 27년 2.2%→2.5%로 높아졌다. 올해 3%대 물가상승률을 시현하고 에너지 발 영향이 소멸되는 내년에도 근원 물가가 2% 중반에 머물면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26년 성장률은 2.4%→2.2%로 소폭 낮아졌으나, 실업률도 4.4%→4.3%로 하향 조정되며 경기 우려는 제한됐다. 이에 점도표 중간값은 26년 3.4%→3.8%, 27년 3.1%→3.6%, 28년 3.1%→3.4%로 상향 조정됐다. 통상 19명의 위원들이 점을 찍어 10번째 점이 점도표 중간값으로 인식되나, 이번에는 케빈 워시가 점도표를 찍지 않아 18명 위원들의 의견만 반영됐다. 9명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지지했고, 9명의 위원들이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지지했다(동결 8명, 1회 인하 1명). 다만 금리 인상을 지지한 위원들의 의견 분포가 상당히 위로 치우쳐 있어(3회 1명, 2회 5명, 1회 3명)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 안정을 강조하지만 한쪽에서는 연준 체제 개편을 꾀하고 있는 워시

하나증권은 에너지 충격 소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AI 발 수요 확대, 신규 관세 발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해 **미 연준의 연내 금리 경로를 12월 25bp 인상으로 수정**한다. 노동시장이 버틸 수 있다면 금리는 긴축적인 수준이 적절하다. 케빈 워시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의견 피력과 위원들의 의견 대변을 모두 삼가며 중립적이지만 모호한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1) 연준 커뮤니케이션, 2) 대차대조표, 3) 데이터 소스 활용과 의존도, 4) 대전환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 5)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각각 TF를 구성해 체제를 개편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으로 해당 과정이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주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체제 변화 과정 속에서 내부 연준위원들과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conomist 권규연 kychun@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2026년 6월 18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채권

[6월 FOMC] 물가안정, 12월 인상, 금리 상승

- 기준금리 동결. 올해 점도표를 연내 0.5회 인상으로 상향. 그 외 포워드 가이드선 삭제
-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 고용 리스크는 사라지고 물가 리스크만 지속되는 상황
- 금융시장은 연준의 반응함수보다 경제지표의 추세에 집중.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압력 지속

가이드선 삭제. 남은 것은 매파적 점도표. 12월 인상 전망

연준은 6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성명서는 포워드 가이드선이 삭제되고 파격적으로 짧아졌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solid) 속도로 확장되고, 생산성과 투자도 강하다(strong)고 평가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공급 충격 등으로 목표치 대비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will deliver price stability)이라는 문구로 마무리했다.

점도표는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 [도표 1]. 2026년 점도표는 동결/인하 9명, 인상 9명으로 나뉘면서 중간값은 0.5회 인상을 반영한 3.75%로 3월(3.38%) 대비 1.5회 높아졌다. 인하를 점친 위원은 1명에 불과한 반면 (동결 8명), 인상은 1회 3명, 2회 5명, 3회 1명으로 인상 사이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참고로 총 19명의 위원 중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한 위원은 2028년 점도표를 생각했다.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2%로 3월 대비 0.2%p 하향한 반면, 실업률은 4.3%로 0.1%p 낮췄다. 그리고 PCE 인플레이션 전망을 3.7%로 0.9%p 상향했다 (근원은 3.3%로 0.6%p 상향). 인플레이션은 2028년에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표 2].

케빈 워시는 기자회견에서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가이드선을 제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앞으로 진행될 Task Force(TF)의 영역으로 넘겨버렸다. 다만 고용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고, 물가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발언만 수차례 반복했다. 통화정책이 주택 부문에 긴축적이거나,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기자회견이었다.

올해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기존 동결 전망). FOMC 내부적으로 매파 기초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실업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됐다. 연준의 Longer-run 전망과 비교 시, PCE 인플레이션은 크게 벗어났, 실업률은 전망 밴드로 안정됐다 [도표 3]. 이 추세가 지속되면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하반기 중 2차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매파 기초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유가 안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상의 시급성은 소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상 시기를 4분기로 전망한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한편 리더십 변화를 계기로 5개의 TF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 커뮤니케이션, (2) 대차 대조표, (3) 데이터 소스, (4) 생산성과 일자리, (5) 인플레이션 체계다. 경제전망(SEP) 등에 변화가 예상되고 충분한 지준(ample reserve) 체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시대적 서베이 기반의 지표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기관의 데이터 등 시의성이 높은 지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의 경제적 효과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동인에 대해 고전적인 필립스 커브에서 벗어난 시각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물가 목표에는 변화 없음). 워시는 기자회견에서 고용과 물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여전히 상승 압력 우위

FOMC 이후 금리 레벨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됐다. 국채 금리는 2년물은 10bp 이상 급등한 반면 10년물 상승 폭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며 단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10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유가 상승의 2, 3차 파급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며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크게 좌우되는 30년 금리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국채 금리는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케빈 워시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반응함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시장 참여자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워시의 발언대로 금융시장은 data-dependent가 심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 시장의 회복 추세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리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 시장의 최종 기준금리 기대가 4% 전후에서 형성되면서 미국 10년 금리도 4.6% 전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6]. 기초적 인상은 아니므로 금리의 상승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리 상승의 본질은 통화정책 긴축보다 편더멘털이다. 만약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면, 정반대로 단기금리는 안정되더라도 중장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면서 장기물 금리 급등을 유발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보임에 따라 장기물보다 단기물 금리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은 단순히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 등은 연준의 인상 시급성을 다소 낮춰주는 요인에 불과하다. 현재 경제는 기업의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시장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SEP에서 기준금리 Longer-run 전망 중 중심경향의 하단이 3월 2.9%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는 장기금리 하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 중 하나다.

2026년 6월 19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4,500원
현재주가(6.18) 17,73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9,063.84
52주 최고/최저(원)	22,650/11,770
시가총액(십억원)	5,502.1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310,327.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8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0
외국인지분율(%)	39.74
주요주주 지분율(%)	
롯데쇼핑 외 6인	10.82
국민연금공단	8.79

Consensus Data

	2026F	2027F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1,117	1,204
순이익(십억원)	883	948
EPS(원)	2,771	2,990
BPS(원)	36,819	38,533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3,334	3,370	3,511	3,692
세전이익	992	1,095	1,162	1,216
지배순이익	729	815	862	901
EPS	2,278	2,614	2,792	2,919
(중감율)	16.9	14.8	6.8	4.6
수정BPS	33,446	34,612	37,113	40,033
DPS	650	735	840	940
PER	4.5	6.1	6.4	6.1
PBR	0.31	0.46	0.48	0.44
ROE	7.0	7.6	7.7	7.6
ROA	0.5	0.5	0.5	0.5
배당수익률	6.3	4.6	4.7	5.3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BNK금융 (138930)**이번 분기는 다를 것****기대를 하회했던 1분기. 그러나 2분기 실적은 한단계 레벨업된 순익 시현 전망**

BNK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4,500원을 유지한다. 동사는 비이자이익 부진으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가 최근까지 약세를 보인 바 있는데 금번 2분기 실적은 최소한 시장의 낮아진 기대치를 상당폭 웃도는 호실적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분기 추정 순이익은 QoQ 28.9% 증가한 2,725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는 배경은 1) 양행 합산 NIM은 1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행 합산 원화대출이 2분기에만 3%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시현하면서 순이자이익이 큰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2) 중앙미디어그룹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70억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삼성기업 담보물 매각에 따른 충당금 환입 또한 100억원 내외 발생해 그룹 대손비용이 1,700억원대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앙미디어그룹 관련 익스포저는 부산은행 70억원 외에 경남은행도 250억원 정도 있지만 높은 담보 비중으로 경남은행분은 추가 충당금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3) 2분기에도 국채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유가증권관련손실 발생 규모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2분기 중의 시중금리 상승 폭은 1분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유가증권관련이익 등은 1분기 대비 상당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룹 순이자이익과 증권 브로커리지수수료 증가 현상 등을 감안시 분기 경상 순익이 상당폭 레벨업될 것으로 추정되고, 시중금리 추가 상승에 따른 일정규모의 유가증권관련손실 발생 등을 감안한다고 해도 2분기 중 2,700억원대의 순익 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반기 최소 700억원 이상의 추가 자사주 매입 기대. 유가 하락도センチ멘트 개선 요인

동사는 전일자로 상반기 중 예정된 6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했다. 2분기의 높은 대출성장률로 인한 RWA 증가분과 자사주 규모 등을 고려해도 당기순익 효과 등을 감안하면 2분기 CET 1 비율은 12.27%로 QoQ 3~4bp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총주주환원율이 40.4%를 기록했고, 2027년 중에는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총주주환원율은 4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올해 연간 추정 순익 8,620억원 기준 연간 DPS는 840원으로 배당성향은 30.3%가 예상되고, 총주주환원율 45%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최소 700억원 이상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해야 한다. 향후 순익 규모에 따라 800억원도 가능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자사주 확대는 결국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로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고유가 지속에 따른 기업대출 credit risk 확대 우려가 타행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センチ멘트에 우호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분기 실적에서 시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NIM 하락일텐데 부산은행 NIM이 QoQ 3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1분기의 신보출연료 과오납 환급이라는 일회성 발생과 이에 따른 거저 효과 때문으로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2026년 6월 19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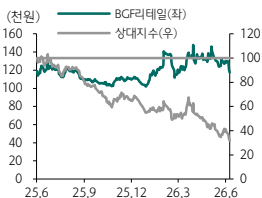
현재주가(6.18) 117,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9,063.84
52주 최고/최저(원)	147,800/102,000
시가총액(십억원)	2,030.9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7,283.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7.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1
외국인지분율(%)	38.05
주요주주 지분율(%)	
비지애프 외 18인	49.23
국민연금공단	8.3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462	9,846
영업이익(십억원)	287	315
순이익(십억원)	222	245
EPS(원)	12,825	14,165
BPS(원)	84,730	94,54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7,616	8,195	8,699	9,061
영업이익	252	253	252	254
세전이익	254	248	245	247
순이익	194	196	195	195
EPS	11,198	11,331	11,295	11,297
증감율	31.1	1.2	(0.3)	0.0
PER	18.8	11.6	9.1	9.3
PBR	3.8	2.1	1.5	1.4
EV/EBITDA	6.3	4.1	3.2	3.0
ROE	20.1	18.2	16.5	14.9
BPS	55,795	62,265	68,611	76,070
DPS	4,100	4,100	4,100	4,10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BGF리테일 (282330)**점포 영업레버리지 효과 본격화****감가상각비 감소 구간 첫 진입**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나 증가한 381억원을 기록했다. 가파른 이익 개선의 이유는 첫째, 감가상각비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분기 감가상각비는 1,265억원(별도기준, YoY -1.2억원)이었다. 2023년 이후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정체였는데, 점포수가 크게 늘면서(2023년~24년, +1,671개) 증가하는 감가상각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2025년 점포수 순증은 253개, 올해 역시 300점 순증(신규 1,300개-폐점 1,000점)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상품믹스 개선으로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 저마진 담배 매출 비중은 37%에 그쳤으며, 고마진 식품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해외 사업 확대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요인이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바로 영업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가 높다. 전체 이익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분기 YoY 5% 이상 안정적 매출 성장 지속

동일점 성장률은 1분기 YoY 2.7%에 이어 2분기는 YoY 4%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이 좋았는데, i) 연휴 기간 내국인 국내 여행이 증가했고, ii)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 iii)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 효과도 작지 않았다. 편의점 역시 외국인 인바운드 소비의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매출 성장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대부분 고마진 식품군에 집중돼 있고, 가장 저마진 카테고리인 담배 매출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1분기 외국인 매출은 YoY 52% 증가했고, 매출 비중은 1.6%, 2분기는 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사용률이 30% 정도 되므로 실제 매출 비중은 3%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에는 거의 없던 매출이므로 전체 성장률의 1/4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분기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일회성 비용(가맹점주 위로금+폐기/대차비용 등)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연결 OP 740억원 예상).

12MF PER 8.6배로 여유있는 수준

편의점 영업환경은 긍정적이다. 외국인 인바운드는 신규 수요가 되고 있고, 경쟁은 완화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저가커피 전문점/무인편의점으로 트래픽 이동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다. BGF리테일은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해 i) 여성/시니어/외국인 고객군을 늘리고 있다(현재 남녀 매출 비율 7:3).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저당, 환자식으로 넓혀 나가고 있으며, 화장품은 물론, 주거 외국인을 위한 조미 소스류 카테고리도 늘리고 있다. ii) 해외 사업은 2028년까지 5개국 1,000개 점포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 몽골을 중심으로 말레이, 카자흐스탄 등지에 700여개 점포가 있다.

2026년 06월 19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6.18) 3,8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00.93
52주 최고/최저(원)	8,186/3,510
시가총액(십억원)	57.2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14,84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7.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4
외국인지분율(%)	3.41
주요주주 지분율(%)	
주주 외 1인	18.85
원익 뉴그로스 2018 사모투자파트너스	10.6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0.0	34.4	33.0	25.7
영업이익	2.5	4.5	(0.2)	(12.0)
세전이익	1.6	(0.1)	(0.3)	(12.5)
순이익	2.8	0.0	(0.8)	(10.7)
EPS	400	1	(63)	(819)
증감율	흑전	N/A	적전	적지
PER	0.00	0.00	(79.54)	(6.33)
PBR	0.00	0.00	2.07	3.09
EV/EBITDA	1.65	0.57	46.89	(7.01)
ROE	69.35	0.08	(3.10)	(40.82)
BPS	1,172	1,664	2,418	1,677
DPS	0	0	0	0



Analyst 김다혜 kim.dahae@hanafn.com

레이저오텍 (199550)**IPO 주관사 업데이트: 올해는 회복 구간, 내년부터 성장 기대****레이저 기반 피부 미용 및 질환치료 의료기기 업체**

레이저오텍은 2000년 설립된 레이저 전문 기업으로, 산업용 레이저 사업을 하다 2006년 LOTUS를 시작으로 피부미용 장비 시장에 진출하여 2024년 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요 품목은 피부미용과 질환치료 의료기기로, 2025년 매출의 81%, 9%를 구성하고 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내수보단 수출 중심이며, 주요 제품은 PicoLo 시리즈, HELIOS 시리즈, LOTUS 시리즈, HYPERION, SCULPIO 등이 있다. 질환 치료기기는 고체 UVB레이저 기술로 백반, 건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PALLAS 시리즈와 신제품인 혈관성 피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VasCura 569가 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2025년 국내 47%, 아시아 25%, 유럽 13%, 북미 5%, 기타 2%이다.

소모품 매출 발생하는 고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수익성 확대

지난 2025년 3월 출시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스킨피오(SCULPIO)의 성장으로 소모품 매출이 확대되며 외형과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킨피오는 기존 흉터 치료 장비 PicoLo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피코레이저와 리프팅을 결합한 제품이다. 장비 판가가 높고 샷 카운트 기능이 있는 핸드피스를 탑재해서 스킨피오가 성장하면 동사도 고마진 소모품 매출로 국내 주요 EBD 업체의 높은 수익성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시술로 피코레이저와 리프팅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며, 회사의 주력 채널인 로컬 피부과를 중심으로 스킨피오의 매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내년부터 정상화 전망

소송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고마진 질환치료 의료기기 PALLAS PREMIUM 미국 판매가 내년 재개되며 실적 회복을 이끌 것이다. 2024년 8월 나스닥 상장 경쟁사가 허위 및 불공정경쟁으로 소송을 걸어 하반기부터 PALLAS PREMIUM 미국 판매가 중단돼 북미 매출은 2024년 51억원에서 2025년 13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내년엔 PALLAS PREMIUM의 보험 코드 Description 내 경쟁사 제품명이 제거된다는 공표가 예정되어 판매 재개 가능할 전망이다. PALLAS PREMIUM은 해외 판가가 높아 판매 재개 시 유의미한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올해는 외형 회복, 내년부터 성장 구간 재진입

올해는 6월 새로 출시된 혈관성 피부질환 치료기기 바스큐라 589와 작년 신제품 스킨피오 장비 및 소모품 매출로 PALLAS PREMIUM의 수출 공백을 메우고, 본격적 성장 재개는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업체 과점으로 신제품 출시가 더딘 미용의료 레이저 시장에서 독자 기술로 소모품, 리프팅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레이저 장비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산 EBD 업체라는 레이저오텍의 포지셔닝은 매력적이다.

2026년 6월 19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방위산업

국방생산법 제708조 발동: 미 방산 실적의 증장기 모멘텀

트럼프 대통령, 국방생산법 제708조 조치 발동

미국 현지시각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생산법 제708조에 따른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은 국가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전쟁부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자발적 협정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는 국가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반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과 미사일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결정문은 6월 16일 사전 공개됐고 6월 17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됐다.

이번 조치는 Title I, III, VII 중 VII에 해당. 직접적인 정부 재정 효과는 제한적

미국 국방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은 민간 산업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산업계에 개입할 수 있다. 원래 국방생산법은 7개 Title 체계였으나 현재 핵심 권한은 크게 Title I, Title III, Title VII 중심으로 남아 있다. Title I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가 민간 수요보다 먼저 공급되도록 하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itle III는 정부의 대출보증, 직접대출, 구매약정, 보조금 등을 통해 국가방위에 필요한 품목의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조항군이다. Title VII는 국방생산법 운용을 위한 일반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Title VII의 제708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Title I의 방산 우선주문이나 Title III의 자금지원과 달리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재고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현재 재고 부족을 직접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미래 수요와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한 공급능력 보강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증장기적으로 미 방산 실적 모멘텀 확대에 긍정적 요인

이번 국방생산법 제708조 조치는 미국 탄약, 미사일 공급 병목을 대통령 명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장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방산업체 간 자발적 협정과 실행계획을 통해 병목 품목과 공급망 취약 지점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핵심 부품의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이 재확인될 경우 향후 국방생산법 Title I 우선주문이나 Title III 정부의 구매약정, 보조금, 설비투자 지원 등 후속 정책 수단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FY2027 미 국방예산 확대와 FY2028에도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무기 공급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증장기적으로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확대에 긍정적이다. 특히 탄약, 미사일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RTX, Lockheed Martin)에 우호적인 이슈로 판단한다. 다만 탄약, 미사일 무기체계는 핵심 부품과 소재의 납기가 길고 증설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지금도 통신 장비주 매수 기회입니다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6.19



Analyst 김홍식_pro11@hanafn.com

RA 이상훈_sanghunlee0121@hanafn.com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6월 들어 통신장비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상반기 높은 주가 상승과 미국/유럽 통신장비주 하락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최근 국내 통신장비주 하락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미국 루멘텀/코히런트 등 광통신을 비롯한 유선 통신장비주, 유럽 에릭슨/노키아를 비롯한 무선 통신 장비주가 고점대비 10~20% 하락에 그친 반면 국내 통신장비주들의 경우엔 30~50% 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다시 통신장비주 비중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 판단이다. 2분기 실적보단 3분기 이후 미국 수주 경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일부에선 미국 주파수 경매 열기가 기대보다는 뜨겁지 않다고 얘기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당 폭이 65MHz에 불과한데도 뉴욕 기준 현재 주파수 입찰 가격이 9억 달러, 전체 지역 총 주파수 할당 가격이 34억 달러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시골 지역은 투자 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 열기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가 종료되면 7월부터 주파수를 할당 받은 미국 통신사들의 장비 성능 시험 및 장비업체 선정이 있을 것이며 기다렸던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올 가을 들려올 것이다. 8월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지만 실적보단 미국 시장 수주 동향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에릭슨, 후지쯔 퍼스트 벤더 위주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RFHIC/KMW/HFR에 대한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 미국과 달리 국내 신규 주파수 공급 및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다.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LTE 주파수의 재할당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5G SA 본격 상용화 시점, 3.7GHz 대역을 비롯한 신규 주파수 할당 및 투자, AI RAN 로드 맵 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2025년 12월 국내 하이퍼 시 네트워크 전략 발표를 통해 2026년 여름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머지 않아 국내에서도 신규 주파수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미 LTE/5G 통합 요금제가 출시됨에 따라 새로운 5G AI 요금제가 출시되기 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AI RAN 구축을 통한 피지컬 AI 활성화 목적으로 7년 만의 신규 5G 요금제 출시가 용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신규 주파수 공급, 네트워크 투자, 요금 인상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 통신장비 업종은 물론 통신서비스 업종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최근 엔비디아가 AI RAN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DU에 이어 RU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일부에선 엔비디아에 밀려 기존 통신장비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우려하는데 사실상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M/S 하락 우려보다는 시장 확대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아웃소싱 업체 입장에서는 대부분 RU 부품, 프론트홀, 인빌딩 쪽에 포진해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가 AI RAN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 드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세계 각국이 5G SA/6G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지컬 AI가 5G SA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를 최선호한다. 3사 중 유일하게 2026년 이익/매당 모멘텀이 존재하며 최근 엔비디아와의 데이터 센터 관련 협력 강화/AI RAN 사업 본격화,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업종에선 AI RAN 관련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KMW, RFHIC, HFR 매수를 추천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5	322,500	362,500	1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SDI (006400.KS)	6/15	539,000	522,000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향 BBU/ESS 증가와 유럽 EV 배터리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 StarPlus Energy를 활용한 현지 생산, LFP 라인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 (003490.KS)	6/15	26,600	28,850	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대덕전자 (353200.KS)	6/15	165,200	167,600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향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FC-BGA 가동률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6/15	142,600	144,800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 이후 사업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며 외형과 수익성 동반 개선 인프라 투자, 선진시장 수요 회복, 산업·방산용 엔진 성장으로 중장기 이익 체력 강화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134,000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한국콜마 (161890.KS)	6/15	86,400	87,800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테스 (095610.KQ)	6/15	182,200	176,100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 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에치에프알 (230240.KQ)	6/15	26,400	24,600	-6.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21%	-10.93%p	+80.73%	-2.7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생명 (032830.KS)	6/15	385,500	469,000	2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신세계 (004170.KS)	6/15	695,000	730,000	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오리온 (271560.KS)	6/15	135,500	134,000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테스 (095610.KQ)	6/15	182,200	176,100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 투자 확대와 NAND 투자 재개 기대가 전공정 장비 수요 회복으로 연결 핵심 장비 경쟁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설비투자 확대 시 수혜 가능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2,200,000	6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71,50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685,000	16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62,500	116.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367,000	10.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283,000	33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7.89%	-24.00%p	+61.30%	-22.2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9,750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995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7,030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665	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23.97	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8.27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4.67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8.33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 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35,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46.9%, 이전치 40.8%)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24.8%, 이전치 20.2%)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1.0%,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4.5%, 이전치 4.1%) 중국 5월 실업률 (5.1%, 이전치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17%,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12.5%, 이전치 9.7%) 유로존 5월 CPI F (3.2%,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3.75%,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1.5%, 이전치 1.4%) 	
6.21	6.22	6.23	6.24	6.25	6.26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6월 소비자기대P (E --, 이전치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5)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0) 미국 6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6.2%) 미국 5월 건축허가 F (E --, 이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PCE (E --, 이전치 3.8%) 미국 5월 근원 PCE (E --, 이전치 3.3%)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P (E --, 이전치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4%)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 자실라지수 (E --, 이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5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24.7%)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